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결정요인에 대한 종적연구(제 1 보)

정 수 진 · 이 은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Part I)

Su-Jin Jung · Eun-Yong R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4. 8 접수)

Abstract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re have been drastic changes in many fields in Korea. Social and economic changes which occurred meantime have influenced clothing expenditures of Korean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65 to 1993. In particular, the impacts of income and price on clothing expenditures were examined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Account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s well as Urban Household Economy Survey published by the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Per-person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clothing and shoes (CSX) in permanent price gener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income since 1965. From 1978 to 1984, however,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clothing expenditures in spite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income, due to the depression of national economy. The proportion of CSX in total consumer spendings ha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1978. In recent years, CSX take only 5% of national aggregate consumption expenditures, whil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urban consumers is 8%. The expenditures for traditional clothing and fabrics for home-sewing decreased m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provide a broader view of the pattern of clothing consumption by Korean consumers. Moreover, the findings can suggest how social and economic changes of a society affect consumers' clothing expenditures.

I. 서 론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세계에서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국민총생산이 50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 사회의 경제산업구조와 사회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나타났는데, 소득의 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생활의 다양화,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 등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뒤따르고 있다.

피복은 음식과 주거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필수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이렇듯 급격한 변화를 겪어 온 현실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소비품목의 하나인 피복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지출 구조와 가치관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경제학, 소비자학 등, 의류학이 아닌 타분야를 중심으로 행해짐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행태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보면 소비자 개인의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알려져 있으나, 국민 의생활 전반에 관한 거시적인 관점은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류학 연구들은 대부분 일정한 시점에서의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지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어, 전체 소비자의 의류소비양상이라거나, 향후 의류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의류학 연구가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시경제적 관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의 변화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자료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을 얻고자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의류

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것이며, 또한 피복 소비지출의 장기적인 변화 및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핌으로써 의류산업의 향방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결정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또 의류산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복 수요변화의 결정요인

(1) 소득

소득은 소비의 원천으로,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품을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을 열등재(inferior goods)라고 부른다.

소비자의 소득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던 주제이다. 여러 소비함수론은 각기 다른 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소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라 할 수 있으며,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Engel의 법칙도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다.

(2) 상품의 가격

소득 다음으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가격과 수요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 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상대적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부른다. 둘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지출액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품의 수요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과시적 소비로써 설명하고 있다. 과시적 소비는 주로 패션상품의 수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특수계층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고, 타계층의 모방이 어려워 신분상징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이은영, 1992).

2. 피복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1) 소득과 피복비 지출

피복비 지출 연구에서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것은 개인 가처분소득이다. Winakor (1989)는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양(量)이 소득이라 보고 개인 가처분소득이 소득의 지표로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을 소득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Houthakker와 Taylor (1970), Dardis, Derrick과 Lehfled(1981), Norum(1989)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연구로는 최은숙(1986), 김영숙·왕인숙(1989), 최배홍(1989) 등의 연구가 소득의 지표로 개인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가처분소득의 증감이 피복소비지출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 지출연구에서 소득의 대리지표로 많이 쓰이는 다른 변수로는 가계총소비지출이 있다. 가계소비지출은 대부분의 소비자 조사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로, 많은 소비자 조사자료들이 조사대상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총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피복소비지출에서의 소득효과를 측정된 연구로는 Houthakker와 Taylor(1970), Winakor(1962, 1989), Dardis, Derrick, Lehfled(1981), Wagner(1986), Nelson(1989)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김영숙·왕인숙(1989), 김영숙(1989), 박선미(1990) 등이 가계소비지출을 소득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개인 가처분소득을 소득지표로 썼을 경우와 가계소비지출을 소득지표로 썼을 경우의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를 비교한 Dardis, Derrick과

Lehfled(198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가처분소득에 비하여 가계총소비지출이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의 피복의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gel은 피복비는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득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나타낸다는 소위 Engel의 제2 법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gburn은 피복비가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피복비에 대한 Engel의 제2 법칙을 반박하였다.

Hamburg(Dardis, Derrick과 Lehfled, 1981에서 재인용)는 1950년의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양대수형 합수를 통해서 0.92의 소득탄력성을 구함으로써, 피복은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고, Ferber(Dardis, Derrick과 Lehfled, 1981에서 재인용)는 역시 횡단적 자료의 연구를 통해서 피복의 소득탄력성은 1에 가깝다고 하였다. Houthakker와 Taylor(1970)는 개인가처분소득과 총소비지출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피복의 소득탄력성을 구한 결과, 피복소비지출이 개인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0.75의 비탄력적인 소득탄력성을, 그리고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1.02의 탄력적인 소득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피복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개 가처분소득으로 소득탄력성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게 나와 피복이 필수재로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가계소비지출을 소득의 대리지표로 삼아 소득탄력성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1보다 큰 값이 나타나서 피복이 사치재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였다(Dardis, Derrick과 Lehfled, 1981; Winakor, 1993). 그 외에 소득에 대한 피복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결과들은 대체로 피복이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Winakor, 1962; Norum, 1989; Mokhtari, 1992).

국내연구에서의 피복비와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소득의 유의한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들 연구 중에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소득의 영향력을 연관시켜서 한 연구가 많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득계층별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횡단적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한길례, 1978; 김정훈, 1984; 김영숙, 1989; 김영숙·왕인숙, 1989; 박선

미, 1990),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피복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횡단적으로 보았을 때 피복은 일종의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복비의 소득탄력성의 경우 서상목(1980), 최은숙(1986), 이석구(1987), 최배홍(1989) 등의 결과는 피복소비가출이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길례(1978), 마기욱(1987) 등의 결과에서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방법과 분석기간, 모형에 포함시킨 변수의 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은숙(1986), 최배홍(1989)은 도시 소비자와 농촌 소비자의 피복소비가출을 비교한 결과, 도시 소비자가 농촌 소비자에 비하여 한계소비성향, 소득탄력성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Lee와 Phillips(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가격과 피복비 지출

피복비 소비지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이며, 횡단적 연구의 경우 가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피복소비가출에 대한 가격의 영향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Winakor(1962)는 일리노이 농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음(-)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였으나, 피복소비가출과의 상관이 약하였으며, Norum(1990)이 1929~1987년 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가격이 피복소비가출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988)가 의류의 최종소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양대수형 함수를 이용하여 구한 가격탄력성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복에 있어서 상대가격이 소비지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Winakor(1989)는 1929~1986년의 피복소비가출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피복의 상대가격이 피복소비가출에 음(-)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최은숙(1986)은 농가와 도시가계의 피복소비가출의 가격탄력성을 각각 계산한 결과 농가는 비탄력적인 음(-)의 가격탄력성을, 도시가계는 역시 비탄력적인 양(+)의 가격탄력성을 가짐을 밝혀내었다.

III. 연구의 절차

1. 연구문제의 기술

본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지난 30년간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존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의 변화를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해 알아본다.

둘째,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의 변화를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알아본다.

2. 이용자료

(1) '국민계정' 관련자료

전체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민간 최종소비지출 자료인 '국민계정'에 제시되어 있는 가처분소득, 민간소비지출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성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가처분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은 개인이 자유로이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여 얻어진다. 개인은 이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개인의 소비는 민간소비지출과 같으며, 개인의 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가계의 소비를 공제한 잔여소득으로 정의된다. 피복소비가출 및 소비합수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가처분소득은 소득의 대리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민간최종소비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은 소비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계 최종소비지출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나, 1970년도 이전에는 가계부문과 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함께 산출하여 가계부문만의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소득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 소비지출을 사용한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중 일부인 의복 및 신발 소비지출은 '국민계정'을 이용한 모든 피복소비가출함수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Prais와 Houthakker(1971)는

이런 경우 비록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어 회귀분석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나, 종속변수인 피복소비지출로 인해 독립변수인 총소비지출이 설명되는 변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비용자 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와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비용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분담금이 포함된다. 분배 국민소득에서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요소소득을 크게 비용자 보수와 기업의 영업잉여로 구분하고 있다. 비용자 보수는 양화중(1980)에 의해서 생애주기가 설모형의 근로소득의 대리지표로 사용되었으며, 보다 나은 대리지표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비용자 보수를 근로소득의 대리지표로 삼는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소비자가 소비행위를 위해 전형적으로 구매한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그 구매량으로 가중평균해서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가계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소비합수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피복 및 신발소비지출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한 모든 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되었다.

물가수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시이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 국민소득환가지수(GNP deflator)이다. 국민소득 환가지수는 국민소득 추계에 관련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수출가격변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에서 개인 가처분소득 및 민간소비지출, 비용자 보수,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은 국민소득 환가지수에 의해 불변가격으로 환산되었다.

(2) '도시가계연보' 관련자료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시가계연보'의 가계소비지출 자료와 피복 및 신발 소비지출 자료가 이용되었다.

가계소비지출은 가계지출에서 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한 값으로 가처분소득에 의해 소비되는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는 마땅한 소득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계소비지출이 소득의 대리지표로서 분석에 이용되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비지출이 피복소비지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IV.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1. 국민계정 자료에 나타난 피복소비지출

(1) 소득, 총지출과 피복소비지출의 추이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 자료 중 의복 및 신발에 대한 소비지출(이하 피복비)의 1965년에서 1992년까지의 자료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앞 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 자료는 소비자의 소비지출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계산에 의해 추정된 것이다. 각 불변가격은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GNP환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것이며, 1인당 소비지출은 총소비지출을 연앙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경상가격으로 계산된 피복소비지출의 총계자료의 경우, 그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분석기간동안 약 84.6배 가량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배제된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피복비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6.7배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피복에 관한 소비지출 증가의 많은 부분이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상가격으로 계산된 피복비와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피복비의 증가폭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물가상승의 영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피복 자체의 고급화, 피복의 질적 향상에 의한 가격상승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불변가격의 증가율만을 가지고 실제 피복비 지출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1인당 불변 피복비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동안 약 4.4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다. 불변 피복비 총계치의 증가율과 1인당 피복비의 증가율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석기간동안의 인구증가로 인한 피복소비지출 증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당 피복비의 추세를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으로 제시한 [그림 1]을 살펴보면, 변화의 추이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림에 의하면 경상가격의 경우는 대체로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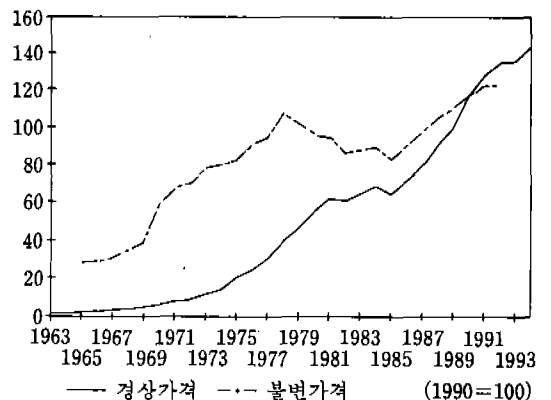
<표 1> 연간 피복비의 변화와 민간소비지출 중 피복비의 비중

년도	피복소비지출(단위: 억원)		1인당 피복비(단위: 천원)		피복비/민간소비지출 (불변, %)
	경상가격	불변가격 (1990=100)	불변가격 (1990=100)	성장비율 (1965=100)	
1965	695	8081	28.15	100.0	4.8
1966	837	8541	29.02	102.9	4.7
1967	1022	9291	30.84	109.4	4.8
1968	1291	10941	35.48	125.8	5.4
1969	1569	12452	39.48	140.0	5.7
1970	2087	18918	58.68	208.1	7.0
1971	2565	22403	68.13	241.6	7.5
1972	2959	23616	70.49	250.0	7.8
1973	3995	26747	78.43	278.1	8.2
1974	5021	27883	80.37	285.0	7.9
1975	7257	29336	83.15	294.9	7.7
1976	8760	32718	91.27	323.6	8.3
1977	10990	34603	95.03	337.0	8.4
1978	14604	39915	107.97	382.9	9.1
1979	17489	38415	102.35	362.9	8.0
1980	21133	36808	96.55	342.4	7.5
1981	24068	36873	95.22	337.7	7.1
1982	24044	34028	86.53	306.8	6.2
1983	26184	35370	88.62	314.3	6.0
1984	27847	36235	89.68	318.0	5.8
1985	26375	33835	82.92	294.0	5.2
1986	29420	37086	89.98	319.1	5.4
1987	33088	40771	97.96	347.4	5.6
1988	37848	44069	104.85	371.8	5.6
1989	42451	46812	110.28	391.1	5.4
1990	49989	49989	116.61	413.5	5.2
1991	55062	52836	122.11	433.0	5.1
1992	58764	53944	123.55	438.1	4.9

(자료: 국민계정, 1965~1992)

상승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불변가격의 경우에는 1978년에서 198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일시적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변 피복비의 감소는, 78년에서 8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1979년의 10.26 사태,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정치적 불안과 1980년의 제 2 차 석유파동, 같은 시기에 있었던 세계적인 경기파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1978년까지 이어졌던 경기상승세에서 침체국면으로 돌아선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규화(1986)는 한국패션산업이 1970년대 말 이후 제 2 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국제시장진출, 국내경기불황으로 60



[그림 1] 1인당 피복소비지출(단위: 천원)

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다른 지출비목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석유파동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난 광열비를 제외한 식비와 연초, 가계시설 및 임료, 교통 통신비의 경우 역시 피복비와 마찬가지로 1980년을 중심으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목들의 감소추세는 피복비의 경우보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복이 이렇듯 불경기 of 영향을 오래 받는 이유로는, 우선, 개인에게 있어 피복의 필요량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기능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복의 양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다. 또한, 피복은 일종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짧은 기간의 경우에는 부가적인 피복구매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재고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의 불안정과 경기침체가 예상될 경우, 피복소비지출은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에 의해 가감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출비목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의류제품소비가 소비자의 미래경제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Sproles, 1979) 것을 보여준다.

피복소비지출의 변화추이를 개인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지출의 추이와 비교하여 보면 개인가처분소득의 경우 경상가격으로는 1965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326.2배, 불변가격으로는 11.2배, 1인당 불변가격으로는 7.3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피복비가 같은 기간동안 경상가격으로는 84.6배, 불변가격으로는 6.7배, 1인당 불변가격으로는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분석기간동안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정도에 비하여 피복소비지출이 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복이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필수재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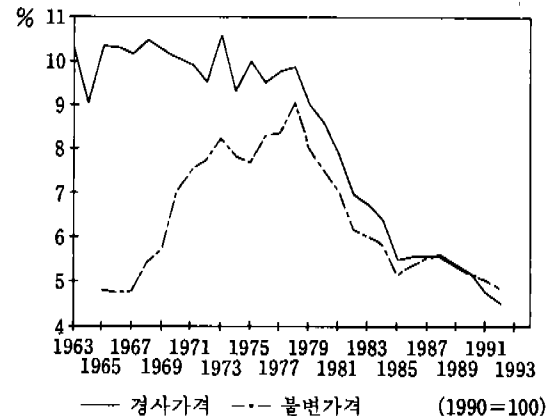
민간소비지출의 경우는 경상가격으로는 193.2배, 불변가격으로는 6.6배, 1인당 불변가격으로는 4.3배의 증가를 보여준다. 경상가격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피복비에 비하여 상당히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으나, 불변가격 민간소비지출이나 1인당 불변소비지출의 경우는 피복비와 거의 비슷한 증가폭을 보인다. 경상가격 민간소비지출의 증가폭이 경상가격 피복비의 증가폭보다 큰 이유는 총물가지수가 피복비 물가지수보다 더 큰

증가를 보여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총물가지수는 1965년에 비하여 1992년에 171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줌에 비해 피복물가지수는 130배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피복의 상대가격 또한 1970년대 이래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비하여 불변 민간소비지출의 증가가 피복소비지출의 증가와 보다 일치하는 것은 개인가처분소득에 대한 피복비의 탄력성보다 총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의 탄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Houthakker & Taylor, 1970; Dardis, Derrick, & Lehfeld, 1981; Winakor, 1993)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다.

(2) 피복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피복소비지출이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피복소비지출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에서 1978년 경까지는 증가하다가 78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때, 비중의 감소시기 앞에서 살펴본 피복소비지출의 일시적 감소기간의 시작점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으며, 비중감소의 기울기도 피복소비지출의 감소시기였던 78년에서 85년에 이르는 시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시, 피복비가 다른 소비지출 비목에 비하여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가감에 융통성이 있는 항목이며, 사회적 경기후퇴기에, 소비자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피복비



[그림 2]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피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가계경제의 수지를 유지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가격으로 계산된 비중과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비중의 추이가 함께 제시된 [그림 2]을 보면, 그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경상가격 비중의 경우 1965년에서 1978년까지는 9.5% 수준에서 약간의변동을 보이다가 78년 이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불변가격의 경우는 지속적 비중의 증가를 보이다가 78년을 정점으로 역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비중의 이러한 하락현상은 미국 및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Winakor, 1989; 김영숙·왕인숙, 1989), Boulding(1970)은 이러한 현상이 피복이 소득탄력성이 적은 필수품이기 때문인지, 소비자의 취향의 변화나 기술발달의 영향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Winakor(1986, 1989)는 피복비 비중의 이러한 하락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던 가설들을 검증하면서, 앵겔곡선이나 탄력성 같은 횡단적 개념을 시계열 자료에 검증없이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피복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은 선행연구의 논의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복은 필수품인 동시에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복은 두 영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피복을 단순히 필수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을 필수재라고 판단할 경우 피복의 소득탄력성은 비탄력적 특성을 보일 것이며, 소득증가율에 비해 피복소비지출은 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피복 외의 다른 비목에 늘어난 소득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개인가처분 소득에 대한 피복의탄력성이 1보다 적게 나와서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Hamberg, 1960; Houthakker & Taylor, 1970; Dardis, Derrick, & Lehfeld, 1981; Norum, 1989; Winakor, 199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므로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또한, 이 가설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

복소비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지만, [그림 2]에 의하면 1978년 이전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복비의 비중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인은 피복의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개 피복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인다(서상목, 1980; 최은숙, 1986). 분석기간 중 피복의 상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피복은 상대가격이 떨어져도(표 2),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보다 그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총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경상가격의 피복소비지출이감소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는 있으나,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피복비 비중조차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의 피복소비지출의 비중감소 현상은 이런 여러가지 설명들을 서로 보완하여 전체 사회의 발전단계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기초적인 생활품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했던 경제적 미발전기에는 각 개인이 적절한 피복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분이 피복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에 이르고 난 후에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피복의 양을 자자의 피복재고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낮은 가격에 필요한 양의 피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총소비지출에서의 피복비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교통 통신비, 교육, 분

<표 2> 총물가지수, 피복비 물가지수와 피복의 상대적 가격

년도	총물가지수 (1965=100)	피복비 물가지수 (1965=100)	피복의 상대적가격 (피복비물가지수/ 총물가지수)
1965	100.00	100.00	1.00
1970	177.94	154.65	0.87
1975	361.76	281.40	0.78
1980	801.47	638.37	0.80
1985	1129.41	818.60	0.72
1990	1470.59	1162.79	0.79
1992	1707.35	1295.35	0.76

(자료: 국민계정, 1965~1992)

<표 3> 전도시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가계소비지출, 피복비, 소비지출중 피복비의 비율

년도	월평균 가계소비지출(단위: 백원)			월평균 피복소비지출(단위: 백원)			피복비/ 소비지출 (단위: %)
	경상가격	불변가격 (90=100)	1인당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90=100)	1인당 불변가격	
1965	87.60	1288.24	231.70	5.50	63.95	11.50	4.96
1966	115.80	1523.68	274.04	9.20	93.88	16.88	6.16
1967	178.20	2121.43	362.64	18.70	170.00	29.06	8.01
1968	203.60	2189.25	384.08	23.60	200.00	35.09	9.14
1969	227.70	2189.42	395.92	26.00	206.35	37.31	9.43
1970	259.90	2147.93	391.96	30.10	226.32	41.30	10.54
1971	301.00	2197.08	406.87	32.90	231.69	42.91	10.55
1972	328.40	2146.41	399.70	30.50	187.12	34.84	8.72
1973	355.80	2251.90	428.12	35.10	202.89	38.57	9.01
1974	435.10	2208.63	423.11	39.30	185.38	35.51	8.39
1975	583.50	2371.95	457.91	52.50	216.94	41.88	9.15
1976	726.50	2558.10	499.63	66.80	241.16	47.10	9.43
1977	835.80	2670.29	552.85	81.30	264.82	54.83	9.92
1978	1119.40	3126.82	661.06	114.20	332.94	70.39	10.65
1979	1481.02	3501.23	751.34	159.22	372.01	79.83	10.63
1980	1792.74	3289.43	718.22	175.95	320.49	69.98	9.74
1981	2152.78	3251.93	713.14	187.18	296.17	64.95	9.11
1982	2489.77	3511.66	789.14	202.29	297.05	66.75	8.46
1983	2710.15	3697.34	846.07	223.63	318.56	72.90	8.62
1984	2943.96	3925.28	917.12	232.32	324.02	75.70	8.25
1985	3170.25	4127.93	980.51	243.59	346.01	82.19	8.38
1986	3481.93	4413.09	1060.84	267.47	371.49	89.30	8.42
1987	4000.31	4920.43	1205.99	315.46	422.87	103.64	8.59
1988	4676.36	5368.96	1328.95	389.64	483.42	119.66	9.00
1989	5942.87	6452.63	1605.13	504.25	553.51	137.69	8.58
1990	6856.62	6856.62	1718.45	571.44	571.44	143.22	8.33
1991	8183.40	7487.10	1885.92	665.39	632.50	159.32	8.45
1992	9419.49	8113.26	2069.71	749.94	673.20	171.73	8.30
1993	10209.53	8389.10	2184.66	774.84	672.60	175.16	8.02

(자료: 도시가계연보, 1965~1993)

화, 오락비의 경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필수적인 비목외의 다른 비목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제한된 소득에서 새로이 등장한 다른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을 하다 보니, 피복비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도 가능한 설명이다.

2. 도시가계연보자료에 나타난 피복소비지출

(1) 가계소비지출과 피복비 지출의 추이

<표 3>에는 '도시가계연보'에서 조사된 1965년에서 1993년 까지의 전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지출과 피복 및 신발 소비지출의 경상가격 및 불변가격소비지

출, 1인당 불변소비지출이 나타나 있다. '도시가계연보'는 전가구에 대한 소득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불변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였으며, 1인당소비지출은 각 연도의 가구당 평균인원수로 총소비지출을 나누어 산출하였다.

<표 3>을 통해 피복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상가격 소비지출의 경우 분석기간인 1965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동안 140.9배, 불변소비지출은 10.5배, 1인당 불변소비지출은 14.9배로 증가하였다. 경상가격으로 계산된 소비지출과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소비지출의 차이는 역시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1인당 소비지출의 증가비율이 가구당 불변소비지출의 증가율

보다 큰 이유는 분석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1965년의 5.56명에서 1993년의 3.84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92년까지의 자료만을 살펴보면, 92년까지는 경상가격 소비지출은 136.4배, 불변소비지출은 10.5배, 1인당불변불변소비지출은 14.9배로 증가했다. 이 수치를 '국민계정'의 피복소비지출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불변소비지출이 '국민계정'의 경우 65년에서 92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4.4배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도시가계연보'의 경우가 3배이상 더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가계연보의 조사 대상이 사회적 대인접촉이 보다 많은 도시 지역의 소비자들로서 피복에 관한 관심 및 소비성향이 높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도시가계연보'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65년에서 93년까지 경상가격으로는 116.5배, 불변가격으로는 6.5배, 1인당 불변가격으로는 9.4배 증가했다. '국민계정'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92년까지의 자료만을 살펴보면, 92년까지는 경상가격 소비지출은 107.5배, 불변소비지출은 6.3배, 1인당 불변불변소비지출은 8.9배로 증가했다. '국민계정'의 1인당 불변기간소비지출이 65년에서 92년에 이르는 동안에 4.3배가 증가하였던 것에 비하여 2배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소비자의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자의 소비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계정'의 경우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량과 피복소비지출의 증가량이 비슷했던 것에 비해 도시 소비자는 피복소비지출의 증가가 총소비지출의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도시소비생활에서의 피복의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따라서 피복이 사치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시소비자의 1인당 소비지출과 피복소비지출을 1년간 위로 환산해서 '국민계정'의 통계치와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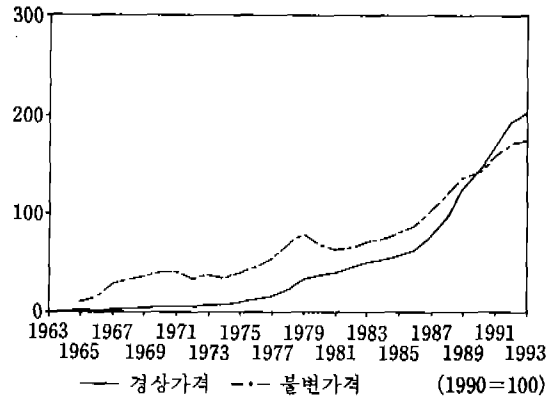
총소비지출의 경우 '도시가계연보'보다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 자료가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민간소비지출안에는 학교, 교회등 민간 비영리 단체의 소비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복소비지출의 경우에는 1985년 이전에는 '국민계정' 자료쪽이 값이 크지만 그 이후에는 도시가계연보의 자료가 값도 커지고 증가비율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소비자의 1인당 피복비의 추이는 [그림 3]에 나

<표 4> '국민계정'과 '도시가계연보'의 연간 소비지출과 피복소비지출의 비교

년도	1인당 소비지출 (불변, 단위: 천원)		1인당 피복소비지출 (불변, 단위: 천원)	
	도시가계연보	국민계정	도시가계연보	국민계정
1965	278.0	584.8	13.8	28.2
1970	470.4	833.4	49.6	58.7
1975	549.5	1077.9	50.3	83.2
1980	861.9	1284.6	84.0	96.6
1985	1176.6	1605.7	98.6	82.9
1990	2062.1	2248.4	171.9	116.6
1992	2483.7	2541.7	206.1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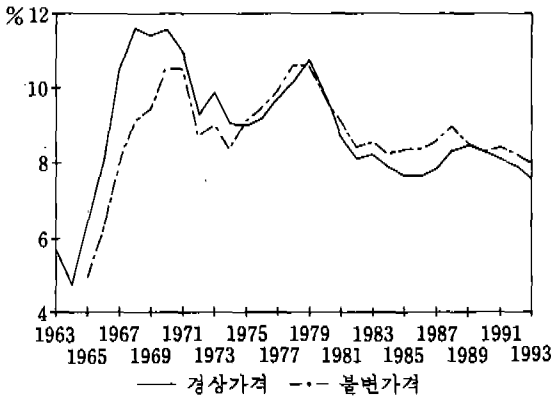
[그림 3] 도시 소비자의 1인당 월평균 피복비 (단위: 백원)

타나 있다. 경상가격의 경우는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변가격은 79년에서 83년 정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국민계정'의 자료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일시적 소비지출 감소의 기간은 '국민계정'의 경우보다 짧으며, 그 폭도 작다고 하겠다. 이는 도시소비자에게 있어서 경기침체에 의해 피복소비지출이 받는 영향이 전체 소비자의 경우보다 작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전체소비자에게 있어서의 피복소비지출이 유동성있고, 자유로운 가감이 가능한 비품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도시소비자에게 있어서의 피복소비지출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피복비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가계 소비지출에서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그림 4])는 '국민계정'의 자료와



[그림 4] 피복비가 도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감소의 기울기가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8%정도의 수준으로 정착하는 듯이 보인다.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의 비중보다 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피복의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

시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하여 더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 소비자가 늘어난 소득의 상당부분을 피복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가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에 비하여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에 더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비중이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복의 대량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대가격 하락, 기타 지출비목으로의 소득전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피복 중분류군의 소비지출 변화

이제 피복 및 신발 소비지출의 중분류군별 소비지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는 각각 중분류군별 1인당 불변소비지출을 제시하고 있다. 불변가격은 항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피복항목별 물가지수의 분류체계가 75년도 이전에는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부득이 75년도 이전의 자료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1982년 이전의 통계치는 종래의 분류를 현재의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웨터·

<표 5> 1인당 피복 및 신발 중분류별 당월 평균 소비지출 : 불변 가격

(1990=100, 단위 : 백원)

년도	중분류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 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1975		30.22			2.31	3.02	4.55	
1976		33.91			2.61	3.61	4.94	
1977		40.26			2.89	4.00	5.95	
1978		51.42			4.00	5.52	7.49	
1979		59.34			4.87	6.81	8.03	
1980		51.46			3.92	6.86	7.61	
1981		48.87			3.04	6.14	7.68	
1982		36.99	7.53	4.47	2.58	3.34	8.81	2.61
1983		40.42	8.39	4.81	2.72	3.32	9.99	2.94
1984		42.92	8.46	4.66	2.58	3.55	10.13	3.13
1985		47.84	8.54	4.66	2.64	3.81	11.06	3.48
1986		52.35	9.23	5.15	2.40	4.12	12.06	3.89
1987		62.42	10.89	5.71	2.10	4.55	13.80	4.39
1988		72.95	13.29	6.48	2.19	5.42	15.15	4.55
1989		81.63	17.54	8.00	2.33	5.85	17.43	4.89
1990		84.23	18.34	8.52	2.39	6.37	18.80	4.58
1991		93.59	20.89	9.64	2.29	7.33	21.18	4.55
1992		100.79	22.97	10.40	2.28	8.19	22.21	4.98
1993		101.04	23.59	10.77	1.53	9.34	24.35	4.93

(자료 : 도시가계연보, 1975~1993)

셔츠, 내의, 직물·실, 서비스 중분류군의 소비지출이 다른 피복 중분류군안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으므로, 자료를 볼 때 주의를 요구한다.

분석기간 중 소비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외군으로서 79년에서 82년까지의 피복소비지출의 감소현상은 대부분 의외군에 대한 소비지출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외군의 소비지출은 75년부터 93년에 이르기까지 3.3배 가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신발군과 스웨터·셔츠군의 소비지출은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발의 경우는 75년부터 93년까지 5.4배의 증가를 보여 가계소비지출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비목이며, 스웨터·셔츠군은 82년에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3.1배의 증가를 기록하여 82년 이후부터의 증가폭으로는 모든 중분류군 별 소비지출 중 최후를 기록하였다(같은 기간 동안 의외는 2.7배, 내의는 2.4배, 기타피복과 신발은 2.8배,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서비스는 1.9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스웨터·셔츠군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요즘 의복의 캐주얼화가 진행되면서 캐주얼을 착용하는 연령대가 넓어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등 전체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분류군별 소비지출의 추이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직물·실군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중분류군에 대한 소비지출이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직물·실군에 대한 소비지출만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 중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직물·실군은 열등재라고 볼 수 있다. 직물·실군에 대한 소비지출의 감소현상은 피복공급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회로 넘어가고, 맞춤형이 쇠퇴하고 기성복 산업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기간에 걸쳐서 피복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소비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의외군이다. 하지만, 1981년까지의 의외군의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렀던 것은 스웨터·셔츠군의 소비지출 등 다른 중분류군의 소비지출이 의외의 소비지출에 가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82년 이후에는 55~60% 사이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88년을 정점으로 약간씩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의외군 다음으로는 스웨터·셔츠군과 신발군의 비중이 큰 값을 가지고, 신발군의 비중은 일정한 반면, 스웨터·셔츠군 소비지출의 비중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일상생활에 캐주얼복이 정착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피복군과 내의군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다가 최근들어 약간씩 커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피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세부적인 피복품목 즉, 내의나 양말, 모자, 머플러 등에 있어서도 패션성을 추구하게 된 요즘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서비스군과 직물·실군의 소비지출은 피복소비지출에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직물·실의 경우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불변소비지출에서의 감소추세와 마찬가지로 기성복의 발달과 가정의 피복공급 역할의 약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각 피복 중분류군이 분석기간중 어떤 가격변화를 보였는지 보기 위하여 중분류군별 물가지수를 총물가지수로 나눈 중분류군별 상대가격추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중분류군은 재봉료, 세탁료, 수선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군이다. 이는 분석기간중 대량생산기술의 발달로 피복의 제조생산원가는 감소하였던 것에 비하여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발과 직물·실, 기타 피복군이 모두 상대가격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타피복의 가격하락이 심하다. 이렇듯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품군들은 대체로 생산공정이 간단하여 대량생산의 특징인 디자인의 단순화, 획일화(이은영, 1992)를 만족시키기가 쉬운 상품들로서,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력 향상과 가격 인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타피복의 상대가격하락이 큰 이유는 기타피복군에 포함된 품목들이 양말, 스타킹 등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상품들로서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동시에, 표준화된 상품으로서 고급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몇 십년간 큰 성장과 변화를 겪어왔다. 인간의 필수적인 소비품목의 하나인 피복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지출 또한 전체 사회가 이런 변화를 겪는 동안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구조가 1960년대 이래 어떤 변화를 겪어왔으며, 소비자의 피복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복소비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다가 1980년을 중심으로 일시적 감소추세를 보이며,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피복소비지출과 소득과의 관계는 전체 소비자의 경우와 도시 소비자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낮은 데 비하여,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피복소비지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1978년을 정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피복비 비중의 감소추세는 피복의 비탄력적인 소득 및 가격탄력성과, 대량생산기술발달로 인한 피복가격하락, 잉여 소득 증가에 따른 피복비 비중감소, 전체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지출비목의 등장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거시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피복의 소비는 획득, 사용, 폐지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이나, 이 연구는 국민전체의 피복비 지출을 총계자료로 추정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의 포괄적인 과정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다.

둘째, 자료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 중 국민계정에 기초한 자료는

1970년 이후부터는 1968년 UN이 제정한 신국민계정 체계에 준한 자료이나,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추정되어 직접적인 비교를 행하는 데에 주의할 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1970년 이전의 자료도 사용하였다. 이전의 방법으로 계산된 계정과 신국민계정의 자료가 값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그 추세곡선의 기울기에 있어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도시가계연보'의 자료의 경우에도 소비지출 비목의 분류체계가 1982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목별로 재구성하였으나 세부사항에서는 분류가 안되는 것도 있어 그 일관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숙(198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왕인숙(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김정훈(1984).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기욱(1987). 민간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1990). 한국경제개발계획연도별 가계소비지출구조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목(1980). 민간소비지출형태의 분석. 한국개발연구, 2(1), 126-145.
- 양화중(1980). 소비결정에 관한 주요 가설의 실증적 비교 분석. 조사통계월보, 12월, 15-26.
- 오광우·이우리(1995). 시계열 예측방법과 응용. 서울: 자유아카데미.
- 이석구(1987). 한국의 소비지출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수요방정식체계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1992).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 조규화(1986). 한국패션산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35.
- 최배홍(1989). 한국의 가계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1986).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길례(1978). 우리나라 가계수입과 소비형태에 관한 연

- 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명희·박유성(1994). 시계열 자료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허명희·서혜선(1993).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통계분석강의총서2 개정판 SAS 회귀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통계청(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1963년~1992년.
- 통계청(1994).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 물가년보.
-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한국은행(1991, 1994). 국민계정.
- Boulding, K.(1970). The Family Segment of the National Economy.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7), 447-454.
- Dardis, R., Derrick, F., & Lehfel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 Houthakker, H.S., & Taylor, L.D.(1970). *Consumer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nalyses and Projections.*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H.Y.(1988). *Market Share Analysis of Major Textile Fi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 Mokhtari, M.(1992). An Alternative Model of U.S. Clothing Expenditures: Application of Cointegration Techniqu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2), 305-323.
- Nelson, J.A.(1989). Individual Consumption within the Household: A Study of Expenditures on Cloth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1), 21-44.
- Norum, P.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
- Sproles, G.B.(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 Wagner, J.(1986). Expenditures for Household Textiles and Textile Home Furnishings: An Engel Curve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1), 21-31.
- Winakor, G.(1962). Consumer Expenditures for Clothing in the United States, 1929~1958. *Journal of Home Economics*, 54(2), 115-118.
- Winakor, G.(1989). The Decline in Expenditures for Clothing Relative to Total Consumer Spending, 1929~1986.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195-215.
- Winakor, G.(1993). Analysis of Clothing Expenditures Data: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used in Engel Curves. *ITAA Special Publication No. 5*, 172-184.